

학부모님께

학부모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

아뢰울 말씀은 학생들의 등교 시 모든 교직원과 교통봉사 학생들의 교통안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, 일부 운전자들의 좋지 못한 운전 습관으로 인해서 학교 앞 교차로와 전북은행 앞 회전교차로 부근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이 염려됩니다. 본교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 및 귀가를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할 것임을 알려 드리며, 학교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보람 있는 생활이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.

참고자료 1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보행자의 행동과 상황

교통사고는 주로 운전자와 보행자, 차량 및 도로 환경 등 어느 한 가지 요인에 따른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.



무단횡단



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걷기



스마트폰을 보면서 걷기



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로 횡단

참고자료 2 교통사고 피해의 심각성

□ 교통사고의 후유장애

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람 중에는 치료를 받고 회복하는 경우도 있지만, 상당수가 후유증이나 장애 때문에 평생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. 장애인의 약 90%가 후천적 요인에 따른 장애인데,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장애를 겪게 되는 교통사고의 경우 장애로 인한 사회적 편견과 무관심 등을 극복하는 데 더 많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.

□ 가족의 고통

교통사고는 가정의 행복뿐 아니라 가정 자체를 파괴하기도 한다. 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자라야 할 나이에 부모를 잃고 형제들도 뿔뿔이 흩어지는 운명을 맞이하기도 하고, 생계 능력을 잃은 부모를 대신해 소년·소녀 가장이 되어 역경을 딛고 살아가야 하는 청소년도 많다.

이러한 교통사고 유자녀는 매년 2만 명 정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.

참고자료 3 운전자의 생각 이해하기

○ 운전자는 보행자가 예상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다. 이는 운전자의 입장과 보행자의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.

예)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와 차가 마주치는 공간이 될 수 있다. 이때 보행자는 ‘차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니깐 그리고 횡단보도는 보행 공간이니깐 차가 알아서 서주겠지’라고 생각하는 반면, 운전자는 ‘차는 덩치도 크고 속도도 빠르니깐 약하고 느린 보행자가 양보하겠지’라고 생각한다.

○ 운전자는 주변의 교통상황을 모두 보는 것이 아니라 관심 있는 것만 보게 된다. 따라서 보행자는 ‘달려오는 차량의 운전자가 나를 보았겠지’라는 생각을 쉽게 단정지으면 안 된다.

예) 운전자는 교통상황을 판단할 때 보행자나 자전거, 오토바이 등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.

○ 신호가 바뀌는 순간 자동차운전자나 보행자는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 무리하게 진행하는 경향이 있고,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를 발견해도 보행자가 알아서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빨리 지나가면 보행자를 피해서 갈 것이라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을 수 있다.

2017년 9월 1일

전 주 평 화 중 학 교 장